



NEWS

|| ▾

LG OLED evo
Objet Collection

연합뉴스

< |사 대통령직 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

Q U

뉴스홈 | 최신기사

<월드컵축구> 김치우, 허정무호 새 해결사(종합)

송고시간 | 2009-04-01 23:12

배진남 기자
기자 페이지

<월드컵 축구> 김치우 '골이예요'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예선 한국-북한전에서 김치우가 골을 성공시킨 뒤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2009.4.1
jj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축구대표팀의 미드필더 김치우(26.서울)가 허정무호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올랐다.

김치우는 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한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5차전 홈 경기에서 후반 42분 프리킥으로 선제 결승골을 터뜨려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후반 33분 공격수 이근호와 교체 투입되고 나서 9분 만에 북한 골문을 열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남북대결에서 이어온 지긋지긋한 무승부 징크스를 마침내 깨뜨린 소중한 골이었다.

행운도 깰었다. 김치우는 상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잡은 프리킥 기회에서 왼발로 감아 찼다.

그의 발을 떠난 공은 절묘하게 휘어지며 날아들었고, 동료는 물론 북한 수비수도 맞지 않고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공의 방향을 놓친 북한 수문장 리명국이 손을 뻗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지난달 28일 이라크와 평가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린 데 이어 김치우의 A매치 두 경기 연속 골.

1010회
모토 당첨결과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 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가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coway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월드컵 축구> 환호 환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일 서울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2010년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예선 한국-북한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김치우(맨아레)를 오범석(가운데), 강민수(위)가 달려들며 함께 환호하고 있다. 2009.4.1
zjin@yna.co.kr

2006년 10월8일 가나와 친선경기를 통해 A매치 데뷔전을 치른 김치우는 이로써 태극마크를 달고 21경기에 출전해 통산 2호골을 넣었다.

왼쪽 풀백은 물론 측면과 중앙 미드필더로 두루 활용 가능한 전천후 선수 김치우는 이날 벤치에서 대기하다 후반 33분 교체 투입돼 왼쪽 미드필더로 뛰었다.

김치우는 일단 "어려운 경기에서 내가 넣은 골로 승리해 너무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찼다"고 프리킥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허정무 감독은 이번 남북대결을 앞두고 경고 누적으로 못 뛰는 중앙 미드필더 김정우(성남) 대신 조원희(위건)를 불러들였다. 하지만 조원희가 오른쪽 종아리에 타박상을 입어 출전이 불투명해지자 김치우를 그 자리에 세우는 방안까지 고려했다. 하지만 결국 선발 출전은 조원희의 몫이었다.

김치우는 "감독님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는 것도 준비하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이 자리는 내게 익숙하지 않은데다 조원희도 상태가 호전돼 나중에 측면으로 교체 투입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라운드로 들어갈 때 허 감독은 김치우에게 측면 선수들이 지쳐 있으니 활발하게 움직이며 기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일약 허정무호의 영웅이 된 김치우는 "물론 벤치에서 볼 때는 조바심도 있었지만 비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골 욕심도 부렸다"면서 "이제 남은 경기도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hosu1@y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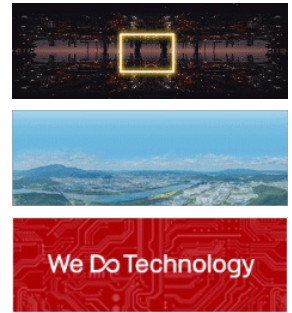
관련기사

<월드컵축구> 북한 선수단 식중독 문제 제기
<월드컵축구> 박지성 "본선행 빨리 확정하고파"
<16년 만에 회비 결산 '한반도 대비'
<월드컵축구> 허정무 "고비를 넘겼다"
<월드컵축구> 정대세 "한국은 정말 강팀"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4/01 23:12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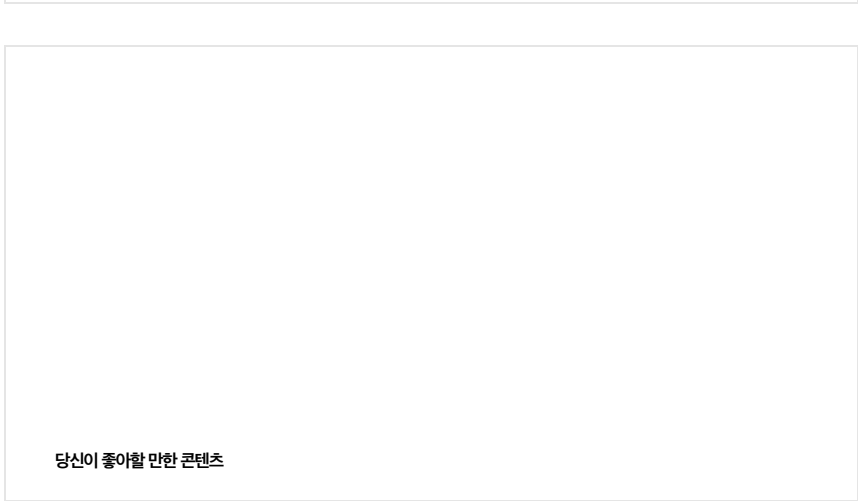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 채 두 눈만 열쫓쫓...누가 확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 장갑차...美, 꺼냈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크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7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1
💬 137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찰에 고발

2
💬 60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대병원 자원봉사

3
💬 59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4
💬 51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
등재개 예열?

5
💬 38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힐 예정"

뭐하고 놀까? #홍콩 →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총

계약사/제휴문의